광주시 '3대 난제' 풀렸다

U대회 선수촌, 현대건설 참여 확정
문화전당, 올해 내 골조공사 마무리
새 야구장, 국제입찰로 시공사 선정

민선 5기 현안사업인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 조성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새 야구장 신축사업 등 소위 '3대 난제'가 풀렸다. 광주U대회 선수촌 사업에 국내 1위의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참여하기로 했고, 옛 도청 별관 보존논란으로 2년여간 지지부진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사업도 올해부터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광주시는 보고 있다. 새 야구장 역시 국비와 시비, 민자 등으로 1000억원의 사업비 조달이 가능해져 국제입찰을 통해 이르면 올 상반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수촌 조성 새로운 모델될 듯**=도심 내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해 선수촌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그 선례가 없는 획기적인 구상이었다. 그러나 2014년 이전으로 준공기한이 정해진데다 까다로운 주민동의 및 행정절차, 지역건설 불경기, 업체들의 잇따른 불참 선언 등의 암초로 인해 이 사업은 수개월 간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건설업체들은 미분양을 우려해 제안서 제출에 난색을 표했고,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등이 애를 태우며 건설업체와 직접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건설업계 1위인 현대건설이 광주U대회 선수촌 재건축에 참여하기로 결정, 8일 재건축조합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 계획된 25~45평형대 3702채에서 면적을 줄여 공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작은 평형의 경우 임대 전환 시 광주시의 지원 등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제안서가 재건축사업조합 총회를 통과하면 사업시행 인가 후 상반기 중에 이주 및 철거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이르면 2014년 말, 늦어도 2015년 초에 완공될 예정이다.

◇**전당 골조 올해 마무리**=국립아시아문화전당사업은 올해 400억원의 예산으로 옛 도청별관 뒤에 들어설 어린이지식문화원을 제외한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아시아문화정보원 등 신규 건물의 골조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옛 도청 별관은 올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구조를 보강하고 2012년 상무관, 옛 도청 본관 및 민원실 등 보존건물과 함께 리모델링한 뒤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내년 부분개관 대상은 보존건물이 될 것이며, 콘텐츠까지는 아니더라도 달라진 외형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 확보가 중요한 사안이며 여기에 지역 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내년부터 그동안 불용처리된 예산까지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주 추진단과 협의를 갖고 올해 공사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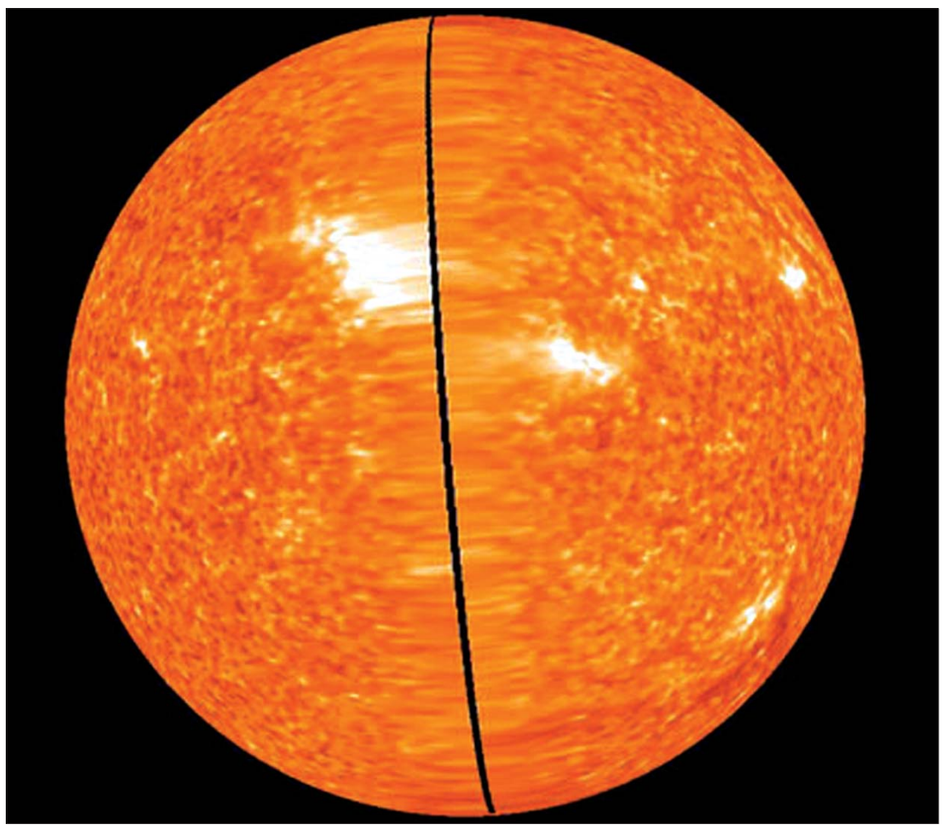
◇**야구장 국제입찰 통해 명품으로**=광주시는 공사비 1000억원대의 야구장을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국제입찰을 통해 설계·시공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무등경기장 내 축구장을 철거한 뒤 인근 소방파출소와 도로 부지까지 포함해 전체 부지 9만5000㎡에 들어설 야구장은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2013년 말 완공된다.

국비와 민자 600억원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축구장 시설의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해 국비를 조달하고 기아타이거즈에 새 야구장을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이를 모두 해결했다.

한편 강운태 광주시장은 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동구 아시아문화전당사업과 주변지역 재생 ▲ 지산유원지 개발 ▲광주U대회 선수촌 조성 ▲송암산업단지 디지털문화산업단지로 변경 ▲광주역 역세권 개발 ▲새 야구장 신축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을 민선 5기 7대 도심재생사업을 정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옛 도청별관 보존 논란으로 지지부진했던 문화전당 공사가 새해 들어 탄력을 받고 있다. 연내 마무리될 아시아예술극장의 골조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건물의 윤곽을 드러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NASA, 사상 첫 360도 태양 촬영 영상

나사(NASA·미항공우주국)가 6일 역사상 처음으로 360도 각도에서 촬영한 태양 영상(사진)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지난 2006년 발사된 NASA의 쌍둥이 위성 스테레오(STEREO·Solar Terrestrial Relations Observatory)가 촬영한 것으로 스테레오 중 하나가 지구 정명으로, 다른 하나가 뒷면으로 각각 멀어져 반대편에 자리 잡으면서 360도 사진 촬영이 가능하게 됐다.

사진은 태양의 뒷면으로, 가운데 검은 선은 두 위성이 보내온 영상의 공백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자료가 보강되면 사라지게 된다고 나사는 밝혔다.

스테레오 관계자들은 태양 모습을 앞에서 뒤까지 완전히 볼 수 있게 됨으로써 복잡한 태양 기상 패턴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으며 장차 태양계 탐사 로봇이나 유인우주선 계획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순천 보선 선거전 돌입

구희승·허신행 등 예비후보 잇단 등록

민주당 서갑원 전 국회의원의 낙마로 오는 4월 27일 치러질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르면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7일 순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구희승(48) 변호사와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이 이날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민주당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

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특보를 역임한 안세찬(50)씨와 박상철(51) 경기대 교수 등 2명도 지난 1일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다.

구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회로 진출한다면 순천을 전남권의 핵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안씨는 "새롭고 깨끗한 정치가 우리 순천에서도 시작돼야 한다는 생각에 출마를 선언한다"고 말했으며, 박 교수는 "민주주의 회복과 정권교체를 통해 원칙과 상식이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조만간 선거사무실 개소와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말 맨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한 허 선(59) 전 공정거래위 사무처장도 조만간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이며, 조재환(62) 전 민주당 의원도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으로 있는 등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밖에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 정순균 전 국정홍보처장, 신택호 변호사, 이평수 전 민주당 대변인 등이 거론되고 있어 민주당 후보 경선에만 10명 안팎의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동당에서는 이수근 전 전남도당 위원장과 김선동 전 사무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한나라당에서는 김기룡 특임실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북향은 관중에 남향은 선수에 유리

광주 새 야구장 방향 고민…KBO 동북향 권고

이르면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인 광주 새 야구장의 방향이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현재 무등경기장 야구장의 방향은 남향이지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동북향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민의견 수렴과정에서도 남향과 동북향을 선호하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남향의 경우 수비수들이 해를 등지고 경기에 임할 수 있어 선수에게 유리한 반면, 동북향은 1루나 홈 방면의 관중이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어 관중친화적인 배치 방향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동북향 야구장 건립을 염두에 두고 최근 KBO에 자문을 구했다. 현행 KBO 규정에는 동북향을 권고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국내 야구장 가운데 동북향은 목동구장, 대구구장 2곳뿐이며 잠실경기장과 부산사직구장, 인천문학경기장 등 나머지는 대부분 남향이다"며 "시민들과 선수들의 의견을 충분한 고려하고 세계 각국의 야구장 방향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달 중 야구장의 방향을 확정하기로 하고 실무 공무원들을 조만간 미국 LA다저스와 뉴욕 양키즈, 뉴욕메츠 구장 등에 보낼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학교법인 우암학원 창학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홍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옆):032)329-4400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구 동명극장 앞):055)745-9870 창원점(한마음병원 뒤):05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